

동두천 정체성 리브랜딩 전략 방안

Dongducheon Identity Rebranding Strategy Plan

주 저 자 : 이승환 (Lee, Seung Hwan) 동양대학교 웹툰애니메이션학과 교수
fani@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s.2024.3.205>

접수일 2024. 08. 23. / 심사완료일 2024. 08. 30. / 게재확정일 2024. 09. 09. / 게재일 2024. 09. 30.
본 논문은 2023학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Abstract

60% of the Dongducheon area is a military area, which has been stagnant for over 70 years due to many restrictions on industry and local economy. After the plan to relocate to Pyeongtaek, Korea, the U.S. military, which was in charge of the axis of the Dongducheon local economy, has been withdrawn, further stagnating the local economy and reducing the number of residents in the country. In this study, we propose to rebrand the Dongducheon area by actively utilizing the negative image of Dongducheon as a military area and base village after the relocation of the U.S. troops in Korea. To this end, we propose to re-establish the image of an underdeveloped city by rebranding the local identity of the sacrifice for security, respect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sacrificed in modern history, and revitalizing the birthplace of rock culture.

Keyword

Local Brand(지역브랜드), Cultural Industry(문화산업), Storytelling(스토리텔링)

요약

동두천 지역은 60%가 군사지역으로 산업과 지역 경제에 많은 제약을 받고 70여년간 정체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주한미국 평택이전 계획 이후 동두천 지역경제의 축을 담당했던 미군이 빠져 나가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 되고 정주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동두천이 갖는 군사지역,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새롭게 스토리텔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두천 지역브랜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두천 곳곳의 갖고 있는 자원과 스토리를 아카이브화하고 현대사인 히스토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안보를 위한 희생의 지역정체성을 현대사에서 희생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락문화의 발상지를 활성화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존중하는 도시 정체성을 리브랜딩하여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재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안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2. 동두천 배경

- 2-1. 동두천 현황
- 2-2. 동두천 역사적 배경
- 2-3. 동두천 정체성

3. 동두천 브랜드 발전 구상

- 3-1. 여성친화 추모도시
- 3-2. Street Identity 구축과 가로 정체성 확립
- 3-3. 락페스티벌 및 클럽문화 활성화

4. 제언과 향후 연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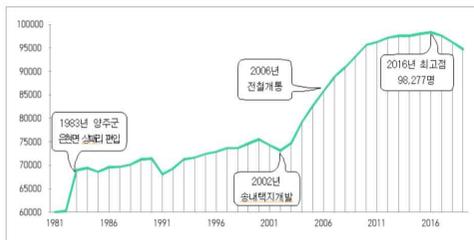
참고문헌

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로 동두천은 변화의 기회를 잘 준비하여야 한다. 지역경제의 최대 공급자인 미군이 이주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변화가 위기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다만 기회의 창출에 동두천시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준비하는 지역문화를 살펴보고 지역이미지를 재창조하는 전략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원 발굴이 중요할 것이다.²⁾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동두천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동두천 지역문화를 찾아보고 고증을 통해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즉, 동두천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파악하고, 동두천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동두천의 이미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미뤄오고 발전을 저해 해온 요소를 리뉴얼하면서 과거의 근현대 역사를 토대로 동두천이 갖고 있는 장소 자원들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쓰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2. 동두천 배경

동두천은 1951년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절름발이 도시로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 1981년 동두천시로 승격이후 1999년까지 소폭 상승하다가 2002년 택지개발과 2006년 전철 개통으로 급격한 인구변화를 가져왔다. 2016년에 최고 98,277명으로 늘어났으나 정점을 찍고 현재는 7만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³⁾



[그림 2] 동두천시 인구변화 (1981~2019)

2-1. 동두천 문화 유적자원 현황

- 이상규, 경기연구원지역연구, 2004.12, pp.71~96 참고
- 동두천보고서 2019. 12. 30

동두천은 타 지역에 비해 지정문화재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역사적 소재가 부족하며 1950년대 이후 무형의 근현대사의 질곡이 큰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재와 유적지들이 우리에게 생소하게만 느껴지고 지역을 알리는 콘텐츠로서는 부족한 현실이다. 문화재나 역사적 자원이 부족한 동두천은 미군이 지역의 인구의 반을 차지할 만큼 많았던 시절 미군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한국의 땅에 미국인들이 즐기고 향유했던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왔다. 과거 향수를 자극하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근현대 시대에 회생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동두천의 모습을 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치부하며 자칫 잊혀 질 수 있는 질곡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하고 남길 필요성이 있다.

[표 1] 지정 문화재 출처 동두천시정 주요 통계 2019. 12

구분	명칭	소재지
국가 지정 문화재	반아비라밀다심경약소	평화로
도 지정 문화재	광주정씨 소장 고문서 (제207호)	신천로
	경기송사·송서·울창 (무형문화재 제54호)	어수로
	동두천민요 (무형문화재 제55호)	상패로
시 지정 문화재	동두천민요 (시 지정 제1호)	상패로
	하봉암도당굴 (시 지정 제2호)	정장로
	이담농약 (시 지정 제3호)	어수로

[표 2] 향토 유적지 출처 동두천시정 주요 통계 2019. 12

지정 번호	명칭	소재지
제1호	사패지 경계석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내
제2호	목행선 선생 묘역	지행동 산11-1
제3호	홍덕문 선생 추모비	상봉암동 산32-1
제4호	어유소 장군 묘역	광암동 산65
제5호	탑동석불	탑동동 산503
제6호	경사호 선생 묘역	안흥동 산21-6
제7호	어유소 장군 사당	탑동동 255-3
제8호	자재암	상봉암동 산1-1
제9호	삼층단	상패동 894

제11호	동점마을 암각문	탑동동 336
------	----------	---------

2-2. 동두천 역사

동두천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내을매(內乙買)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통일신라 시대인 경덕왕 16년(757년)에 사천현(沙川縣)으로 승격하여 견성군(堅城郡, 현 포천시)에 속하였다가 고려시대인 현종 9년(1018년) 견주군(見州郡)이 양주군(楊州郡)으로 편입되고, 견성군(堅城郡)의 영현이었던 사천현(沙川縣)도 양주(楊州)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세조 12년(1466년) 양주(楊州)가 목(牧)으로 승격되고 방리(坊理) 32개면 중 하나인 이담면(伊淡面)이 동두천의 기원이 되었고, 이담면(伊淡面)은 가정자리(柯亭子里)외 9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일 강제병합 당시 중심지인 가정자리(柯亭子里)가 동두천리(東豆川里)로 개칭되어 이것이 시명의 기원이다. 해방 이후 1963년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73년에는 포천군 포천면 탑동리를 편입하였고, 1981년 동두천시로 승격된 후, 1983년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가 편입되어 현재의 행정구역이 형성되었다.⁴⁾ 1951년 7월 미보병 24사단을 필두로 한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이담면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상업중심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⁵⁾ 시민의 상당수가 타지역 출신으로 특히 이북 실향민들이 많았다. 미군 주둔의 요충지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1963년에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1년에 이르러 동두천시로 승격되면서 시로써 행정조직을 이루게 된다.

결국 동두천시는 남북전쟁이라는 역사의 아픈 상처 속에서 희생된 신생미숙아 도시였던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동두천 경계의 원동력인 반면 아픔을 보듬고 간 질곡의 역사를 가져다준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이제는 미군이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숙제를 남기고간 동두천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전쟁이후 당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역사성이나 고유한 지역문화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우선으로 시민의 삶은 희생되어 왔다. 기지촌은 동두천의 이미지로 굳어져 갔고, 그 안에서 미국의 문화가 전파되고 락음악의 발상지로 발현되어 왔다. 이러한 이국적인 문화와 유흥 속에서 동두천은 점차 화려한 뒤에 쇠퇴하는 모습으로

4) 박희주 외 5명, 2017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동두천 터거리 : 땅과 기억 : 동두천 터거리마을과 공동체 아카이브, 경기문화재단. 2018, p11

5) 오영균, 지우석, 이정훈, 이상훈, 하봉운, 이상규, 동두천 지역연구, 2004. p22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후 미군들에 의해 급속히 성장했던 도시는 동두천에 주둔해 있던 미군병력이 베트남전에 파견되면서 도시의 발전은 주춤하였다. 1979년 당시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방한에 맞추어 평화로 주변에 당시 지었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제는 공허한 공간으로 흔적만이 남아있다. 캠프 캐시가 위치한 상가와 위락시설들이 있는 보산동 일대는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장소는 이중배합 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뭇 낯선 모습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장소로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되었지만 쓸쓸한 공허한 거리를 채워줄 찾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불과 두정거장에 위치한 소요산은 수도권외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이지만 과거 외화벌이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지촌의 성병관리소인 일명 '몽키하우스'는 동두천시의 그늘진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그림 3]



[그림 3] 소요산 낙점자 수용소 전경 (몽키하우스)

2-3. 동두천 정체성

2-3.1. 미군주둔지 군사요충지

미래의 동두천은 남북교류 협력과 향후 통일을 염두에 둘 때, 동두천시는 성장 잠재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약한 경제구조, 지역의 발전의 협소성, 군사중심도시로 발전하기에는 발목을 잡는 각종 제약으로 도시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평택으로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이 가진 변화의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현실과 장소가 갖고 있는 자산을 직시하고, 과거와 미래의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향후 동두천시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동두천은 1951년 이후 미군의 주둔과 함께해 왔고 그들과 혼재하면서 삶의 터전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동두천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역발전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미주력 부대의 주둔은 동두천을 안보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었다. 동두천은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내하며 미군들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살아왔다. 또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기념탑, 현충탑, 노르웨이 참전기념비, 충현탑, 반공희생자 위령탑 등은 냉전시대에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하는 역사유산으로, 암울한 대한민국 전쟁사의 기억에 남을 현장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림 4]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현충탑, 룩셈부르크 참전기념탑, 함전기념비 (상단에서 아래순)

이러한 전쟁이후의 유산들과 DMZ이라는 전무후무한 신비의 장소를 콘텐츠화 할 수 있다면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희소성 있는 현대사 관광지로서 조성될 것이다. 한편, 미군을 통해 동두천시는 미국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한 미 우호의 밤 행사와 미군 병사들을 위한 락음악 밴드 공연과 한국문화 체험 행사들을 매년 열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문화적 교류와 융합은 음식, 음악, 패션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중앙로는 양주시장과 동두천 상권의 핵심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일부이고 박정희 정부에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기지촌을 조성하여 매우 부정적 이미지가 다른 모든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 특히 타지역에 비해 동두천에 주둔하는 사병들은 주로 육군들로 경제력이나 학력수준이 강군들보다 수준이 낮아 사건사고가 많았으며 환락적인 서양문화를 유포하여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또한 동두천 시내의 광범위한 토지가 미군공여 또는 군사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역경제가 서

비스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불균형은 동두천이 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 상당수의 동두천 시민들은 주한미군이 동두천에 미친 악영향으로 지역이미지 훼손(29.5%)과 청소년의 교육환경 저해(24.1%)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에서 제약(20.3%), 치안과 법질서(미군의 폭행과 강도, 11.8%) 등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정적 정체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 시민들은 미군이 지역 경제와 안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삶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군들의 외화벌이 목적을 갖고 있는 기지촌으로 고착된 지역의 정서와 이미지가 미군기지의 이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와 이미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 사람들에게 쌓아온 인식으로 정신적인 면에 관계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된 변화의 속도가 물리적 환경에 비해 더 오래가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전쟁 이후 동두천은 주요 안보 요충지로 시가지인 동두천천 인근인 미군기지(캠프 케이시, 호비)로 제공하고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어주게 되었다.

○ 동두천에 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되면서 부대 주변 애기지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고 도시가 형성 되었으나, 현재 미군 감축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주한미군 관련 생업종사자 수는 3,600세대 1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미군관련 경제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한다.⁶⁾

동두천지역의 주한미군은 최전방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전력의 자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전쟁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행을 담당한다. 주한미군의 부정적 영향은 미군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 부대 내 환경오염, 지역의 도시개발제한 등 주민생활불편 및 피해사례 등이 있다. 특히, 미군 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지역정서에 왜곡된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미군공여지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시발전의 저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⁷⁾

6) 경기개발연구원, 미2사단 이전에 따른 경기도 파급효과분석, 2003, p.23

2-3.2. 락문화 발생지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문화관광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의 자연이나 역사적 자산만으로 다시 찾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광자원에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과거의 향수나 문화를 향유하는 자기만족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축제의 개최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활력을 찾는 탈출구이자 젊은 청년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두천은 오래전 중요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축제인 '락 페스티벌'은 1999년 출범할 당시 민간 주도로 조직위를 결성하여 이루어진 행사이다. 연방문객 십만여 명이 참가하며 현재 대한민국 락 페스티벌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평가받고 있다. 공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3일간 진행되는 페스티벌은 참여자들을 위해 캠프장을 조성하여, 한국판 '우드스탁'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동두천은 한국 락 음악의 발생지 또는 메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락 음악의 대부로 알려진 신중현이 한국 최초의 락밴드인 '어드 휘(Add 4)'를 결성하여 활동한 무대가 동두천이기 때문이다. 또한 70~80년대까지, 많은 락가수들이 동두천 클럽을 무대로 음악활동을 하였다. 이렇듯 락 페스티벌이 동두천에서 시작된 것은 미군의 주둔에 따른 미국 락 문화적 영향에 기인한 것이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의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유니버설, 화양, 동영, 삼진 등이 주축이 된 미8군 쇼가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타향살이를 하는 미군들을 위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동두천, 파주, 송탄, 의정부, 문산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미군이 주둔한 캠프를 중심으로 순회공연을 하였다. 한때 미8군 쇼는 대한민국 음악인들에게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주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역할을 하였고, 수많은 가수들이 이곳에서 데뷔하여 방송무대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미8군 무대는 한국 가요계에 미국의 음악경향을 국내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60~70년 당시 아직은 낯선 락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미군부대는 락 문화를 찾고 소비할 수 있는 무대로서, 락문화 전파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한 동두천에 많은 클럽들이 생겨나면서, 전성기에는 많은 클럽들이 전속밴드와 공연단을 갖추고 있을 정도이며, 전용 무대를 갖추고 쇼를 진

7) 동두천시청백서. 2016 요약

행하고 있다.

3. 동두천 브랜딩 발전 구상

동두천은 과거 전쟁의 아픔과 미군 주둔으로 인한 기지촌 문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이를 승화하여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동두천의 브랜딩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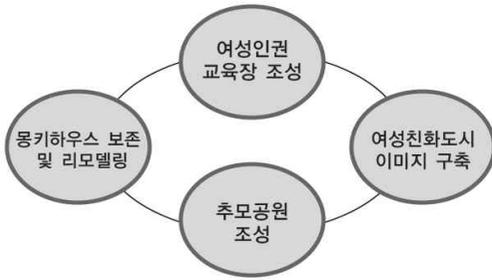
3-1. 여성친화 추모 도시

동두천 낙검자 수용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어린 여성들이 '외화벌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성매매, 성병, 성폭력, 임신과 유산, 약물 중독, 여성의 인권 유린, 국가의 배신과 지역사회의 소외를 경험했던 장소이다. 동두천 구 성병관리소 건물은 정부가 1970년대부터 미군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격리해 수용했던 장소다.⁸⁾ 1960년대 미군이 성병 관리를 요구하면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명목은 성병에 대한 국가 복지였지만 강압적인 치료와 감금이 이루어졌고, 70년대까지도 계속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이 마치 감옥과도 같았다고 기억한다.⁹⁾ 올해로 지어진지 50여년이 지난 이곳은 영화 촬영지, 흥가체험 등으로 알려져 있고 존치와 철거의 대립으로 팽팽하던 상황에 현재는 동두천에서 매입하여 소요산 관광지 주변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과 연계한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들의 격은 고난과 경험은 묻고 사색해야할 역사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성찰과 우리가 반성해야 할 역사이다.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이지만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경제의 큰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정부의 결정과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그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추모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아직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이다. 도시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성장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80년대 강남은 허허벌판 농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 정부의 대규모 도시형성에 따라 불과 40여년만에 엄청난 도시로 성장하였다. 경기 북부의 작고 소외된 동두천은 그동안 내세우지 못했던 역사적 스토리를 새롭게 각색하고 여성들을 위라고 존중하는 도시이미지를 재확립할 수 있다. [그림 5]

8) <https://www.kyeonggi.com> (2023.10.30.)

9) <http://news.lghellovision.net> (2023.10.30.)



[그림 5] 동두천 여성친화 추모도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지만,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두천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성들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으로 몽키하우스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건물을 보존하고 리모델링하여 여성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주변에는 추모 공원을 조성하여 역사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여성 단체,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하여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성평등이 실현되는 도시로서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브랜드 가치로 확립해 나간다면,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익산시, 아산시 등이 우수 사례로 꼽힌다. 동두천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 추모도시 지정을 목표로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볼 만하다.

3-2. Street Identity 구축과 가로 정체성 확립

2020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동두천 과거 번영을 함께 했던 구도심인 중앙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문화 활성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공감을 강화하는 전략 및 정책 방안을 도출한 결과 도시의 일상적 매력 회복과 배려의 문화 유산을 확산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두천 소리이음마당과 5060청춘로드는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 인근 양키시장은 특별하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좋은 자산이었다. 또한 보산동 관광특구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국문화가 물씬 풍기는 이국적인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꼬깃 문화가드닝'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확신

한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부분이 강하다. 해서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서 사람들은 쉽게 공감한다. 즉 형식이 내용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경우, 이러한 시각적 상징물이 지역민의 비전과 공감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때문에 꼬깃 문화가드닝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 이러한 상징체계의 구축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공감력과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축을 향해 실행적 전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거리문화 조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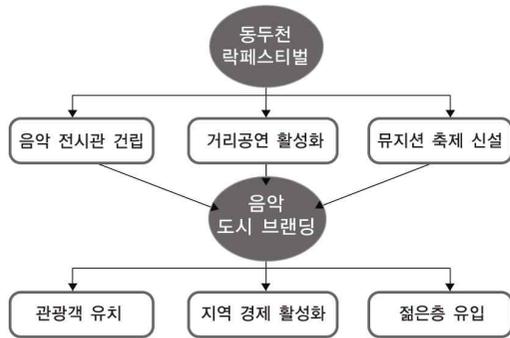
구분	내용
공간 조성	• 컨테이너, 벽화 등 특색 있는 거리 디자인 •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경관 연출
콘텐츠 발굴	•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개발 • 주민 주도 프로그램 기획 (공방, 전시 등)
주민 참여	• 상인회, 예술가, 활동가 등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 •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이벤트 개최	• 정기 프리마켓, 벼룩시장 등 마켓 행사 • 거리 공연, 미식 페스티벌, 계절 이벤트 등
브랜드 연계	• 거리 명칭, BI 개발 등 장소 브랜딩 • 도시 브랜드와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 사례로 영국 브리스톨의 '박스 파크(Box Park)'는 버려진 해운용 컨테이너를 활용해 개성 있는 상점과 푸드트럭 등을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국내에서는 군산 시간여행 마을, 부산 감천문화마을, 광주 평권마을 등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관 조성으로 관광 명소가 자리 잡았다. 동두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시 재생 차원에서의 거리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상인, 주민, 예술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상향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브랜딩이 가능해진다.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과 이벤트 개최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프리마켓이나 벼룩시장, 거리 공연, 먹거리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성된 거리 정체성을 도시 브랜드와

연계하여 대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시 마케팅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3. 락페스티벌 및 클럽문화 활성화

1970년대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록 문화가 싹트던 동두천은 현재 '한국 록 음악의 메카'로 불리며, 매년 수만 명이 모이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 천재 음악가 신중현을 비롯해 많은 뮤지션들이 동두천에서 꿈을 키웠고, 이는 지역 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6] 음악도시 브랜딩 방안

음악은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보편적 언어이자 하나의 도시를 브랜딩하는 강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은 컨트리 음악의 본고장으로, 영국 리버풀은 비틀즈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춘천시가 그 어느 도시보다 음악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으로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음악 도시로서의 정체성은 관광객 유치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동두천 역시 '락 페스티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 동두천시는 '동두천 락 페스타'라는 브랜드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국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페스티벌의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아티스트 섭외 등을 통해 글로벌 페스티벌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평상시에도 거리 공연이 가능한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고, 신중현을 비롯한 동두천 출신 뮤지션들을 조명하는 음악 전시관 건립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음악 창작 스튜디오나 교육 시설을 유치하여 음악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동두천 뮤직 위크' 같은 음악 축제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산동을 젊은 층을 위한 클럽 문화의 메카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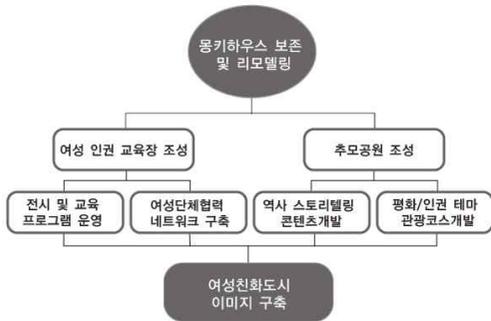
하는 것도 음악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DM 페스티벌로 유명한 스페인 이비자섬이나, 국내 서울 이태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클럽 문화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두천도 국제관광특구라는 특수성을 살려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클럽 거리를 조성한다면 젊은 층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안전 관리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의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동두천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자산을 품고 있다. 아픈 역사를 딛고 여성 친화 도시로, 독특한 거리 문화로, 그리고 음악을 품은 도시로 거듭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시민들 스스로가 주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혜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해 낼 수 있다. 동두천이 가진 특별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어우러질 때, 명실상부한 브랜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동두천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경기 북부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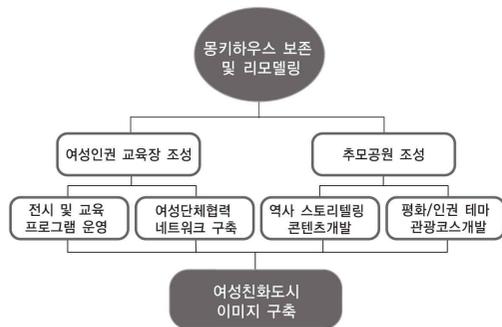
4. 제언과 향후 연구 방향

동두천이 현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구나 살고 싶은 곳, 도시민의 휴식을 하고 싶은 곳, 가족과 놀고 싶은 곳으로 리브랜딩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동두천 지역경제를 일으켰던 미군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의 상태이며, 외지인들의 유입할 수 있는 매력도가 낮은 지역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또한 언젠가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갖고 있다. 동두천에 사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지가가 낮아 잠시 거주하는 장소일 뿐 평생을 자리 잡고 살 생각이 없다. 그만큼 미래의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동두천 신도시의 경우 분양률이 낮은 이유는 지역 시민들과 외부에서 이주하려는 유입인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는 시민들과 외부 이주민이 동두천을 외면하게 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지촌과 같이 강력한 부정적 이미지는 지우기 어려운 강력함을 갖고 있다. 단지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하여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동두천의 노력으로 인프라가 개선되고 환경이 정화되어도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억을 없애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의 여성들의 애환을 달래고 추모하는 역사의 한 줄로 남겨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였던 기억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두천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이미지가 실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동두천의 이미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동두천의 장소브랜딩 전략인 것이다.[그림 7,8]



[그림 7]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구축



[그림 8] 동두천 락 페스티벌 효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가칭 ‘꼬깰 친구들’ 연합체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첫째, 향후 문화적 자산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마인드 제고 및 조직적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상인의 역량강화 및 문화적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 둘째, 중 장기적으로는 ‘동두천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통해 주체적이고 도전적인 문화창출의 터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그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는 문화단체 및 활동가 연합의 구성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주민 자주적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기 위해 상인, 문화예술가, 전문가, 공무원이 연계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 글래스고우나 피츠버그처럼 어둡고 침체된 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산업과 첨단 미디어산업 도시로서 전환한 사례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성수동의 소규모 철재공장, 제화업체 등이 산재해있던 장소가 새로운 도시로 이미지로 음식, 문화, 패션의 메카로 리뉴얼 된 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과거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지로의 ‘힙지로’, 신당동의 ‘신지로’들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가고 창조적인 도시로 거듭 날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경기개발연구원, 미2사단 이전에 따른 경기도 파급효과분석, 2003
2. 동두천시청백서, 2016
3. 동두천보고서, 2019
4. 동두천시청 자료, 2021
5. 이상규, 경기연구원지역연구, 2004
6. 박희주 외 5명, 2017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동두천 텃거리 : 땅과 기억 : 동두천 텃거리마을과 공동체 아카이브, 경기문화재단. 2018
7. 오영균, 지우석, 이정훈, 이상훈, 하봉운, 이상규, 동두천 지역연구, 2004
8. 이정훈, 경기연구원지역연구, 2004
9. <https://www.kyeonggi.com>
10. <http://news.lghellovision.net>